

1월 농축산물 소비자물가 2.1% ↑

농식품부 분석 결과 전년 대비 상승... 정부 "설 성수품 가격 안정 총력"

올해 1월 농축산물 소비자물가가 전년 같은 달보다 2.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2.0%)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축산물 가격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설 명절을 앞둔 장비구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1월 소비자물가지수 분석 결과, 농축산물 물가가 전년 대비 2.1% 상승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농산물 0.9%, 축산물 4.1% 상승했다.

농산물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이지만 일부 품목은 가격이 높게 형성됐다. 지난해 수확이 산지가격이 높았던 쌀, 생선량이 줄어든 사과, 그리고 작황 부진과 고환을 영향을 받은 수입 과일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쌀 가격 안정을 위해 당초 검토했던 시장격리 물량 10만 톤 시행은 보류하는 대신, 가공용 쌀 6만 톤 추가 공급과 벼 매입자금 지원 기준 완화 등을 담은 수급안정 대책을 시행 중이다. 시장 상황이 계속 불안할 경우 추가 대책도 내놓을 방침이다.

설 성수품인 사과, 큰 과일 비중이 줄면서 소비자가격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공영도매시장 기준 전체 평균 가격은 전년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설을 앞두고 사과 공급 물량을 평시 대비 7.5배(2만6,500톤) 확대하고, 사과·배 증소과와 사인머스켓·만감류 등 대체 과일 선물세트 할인 지원도 두 배로 늘릴 계획이다.

바나나·망고·파인애플 등 수입과

일 3종에는 할당관세를 기존 30%에서 5%로 낮춰 적용을 추진 중이며, 2월 중순 이후 물량이 풀리면 가격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축산물은 사육 마릿수 감소와 가축 전염병 영향으로 4.1% 상승했다. 한우는 최근 몇 년간 가격 하락으로 사육 마릿수가 줄어 출하 물량이 감소했고, 돼지는 ASF(아프리카돼지열병)로 인한 이동 제한 여파가 반영됐다. 닭고기, 계란도 고병원성 AI 확산으로 살처분이 늘고, 설 수요가 겹치면서 가격이 올랐다.

정부는 설을 앞두고 농협 출하 물량 확대, 도축장 주말 운영 등으로 공급을 늘리는 한편,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신선단 수입과 계란가공품 할당관세 적용도 추진하고 있다. 전국 일제

소독주간 운영 점검 등 방역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는 각각 2.8%, 2.9% 상승했다. 원재료 가격과 환율, 인건비 상승 요인이 있지만, 업계의 가격 인상 자체 노력으로 전체 상승률은 2%대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식품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원자재 할당관세, 세계 혜택, 자금 지원 등 정부 지원책 활용을 독려하고 있다.

박정호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소비자물가지수 비중이 큰 축산물 가격 상승으로 설을 앞두고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설 성수품 공급을 평시보다 1.7배 확대하고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통해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 품목 수급을 상시 점검하고 비축·계약 물량 확보와 유통구조 개선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상근 기자

휴게소 '곱빼기 메뉴' 출시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라면·우동 선택 옵션 도입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가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객들의 식사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라면과 우동 곱빼기 메뉴를 선보였다.

전북본부는 지난 2월 1일부터 전북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라면·우동 메뉴에 곱빼기 선택 옵션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기존 가격에 1,000원을 추가하면 음식량을 약 1.5배로 늘려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용객이 식사량과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곱빼기 메뉴는 전국 휴게소 가운데 전북권에서 처음 도입됐다. 도입 첫날인 2월 1일에는 라면과 우동을 주문한 고객 5명 중 1명이 곱빼기를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라면은 538그릇 중 120그



릇, 우동은 614그릇 중 156그릇이 곱빼기로 판매됐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관계자는 "휴게소 라면과 우동의 양이 아쉽다는 고객 의견을 반영해 곱빼기 메뉴를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체감도가 높은 먹거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여성창업 활성화 ·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도모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여성기업 육성사업 통합 공고 시행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여성창업 활성화와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여성기업 육성사업 통합 공고'를 4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은 여성 창업 지원, 여성기업 판로 확대, 인력 지원과 함께 인공지능(AI)·바이오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여성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페미테크(FemTech) 산업 육성을 포함한 4개 분야, 11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됐다. 총 지원 규모는 117억4천만 원이다.

먼저 페미테크 산업 육성 분야에서는 유망 기업을 발굴·지원하는 신규 사업이 추진된다. 선정 기업에는 최대 8천만 원의 사업과 자금을 지원하고, 후속 투자 연계와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성장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여성 창업 분야에서는 전국 18개 여성창업보육센터를 통해 여성(예비)창업자에게 창업 공간과 경영 컨설팅을 지원한다. '여성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입상자에게 사

업화 초기 자금도 지원한다.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위한 '여성창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해 수출 대상국 실무교육과 홍보를 돕는다.

판로 지원 분야에서는 맞춤형 MD 상담회, 홍보포진 진출, 온라인 홍보영상 제작 등을 통해 여성기업의 시장 경쟁력을 높인다. 또한 공공기관이 물품·용역의 5% 이상, 공사의 3% 이상을 여성기업 제품으로 의무 구매하도록 한 제도도 지속 시행된다.

인력 지원 분야에서는 '여성기업 맞춤형 인력 매칭 플랫폼'을 통해 기업

과 전문 인력을 연결해 인력난 해소를 돕는다. 이와 함께 청소년·청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멘토링과 IP 코칭 창업체제 사업을 운영하고, 여성기업인을 위한 자금·AX·판로·해외진출 등 4개 분야 전문 교육 과정도 신설·운영한다.

김대희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저출산·고령화 상황 속에서 여성기업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며 "여성기업이 우리 경제의 주요 성장 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겠다"고 말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여성(예비)창업자와 여성기업은 중소기업부 누리집과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에서 세부 일정과 신청 방법을 확인한 뒤 신청하면 된다. /오상근 기자

전북은행, '연금 시작, JB가 응원해요' 이벤트 실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이 국민연금 수급 연령 도래 고객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이벤트를 마련했다.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국민연금 첫 수령 고객을 대상으로 '연금 시작, JB가 응원해요' 이벤트를 오는 6월 30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인 만 63세가 되는 1963년 1월부터 6월 출생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이벤트 기간 중 전북은행 계좌로 국민연금을 개시해 생애 첫 국민연금을 입금할 경우, 캐시백 1만 원을 대상자 전원에게 제공한다.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전북은행 모바일뱅크 앱 '속뱅크' 또는 가까운 영



업점을 통해 이벤트에 응모한 뒤, 국민연금공단이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연금 수령 계좌를 전북은행으로 지정해 국민연금을 입금하면 된다. /오상근 기자

전북테크노파크, 도내 선도·혁신기업 ESG 경영 고도화 견인... 수행기관 모집

전북테크노파크가 도내 선도기업과 혁신기업의 ESG 경영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본격 지원에 나섰다.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규택)는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ESG 경영체계 확립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체계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단발성 지원이 아닌 기업 맞춤형 고도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사업은 기업의 ESG 현황을 정밀 진단해 실질적인 ESG 등급 향상과 경영체질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설계됐다.

환경(E)·사회(S)·지배구조(G) 3대 영역에 대한 역량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지표별 대응 전략 수립과 개선 활동을 위한 전문 교육도 지원한다. 또한 ESG 취약 분야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핵심 과제 이행 상황 모니터링과 재평가 등 사후관리까지 포함한 전주 지원이 이뤄진다.

전북TP는 단순 진단과 자문에 그치지 않고, 기업별 취약 요소를 체계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 가이드를 제공하고 연계 사업비 지원도 병행해 ESG 경영체계의 실질적인 내재화를 돕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업을 수행할 전문 ESG

수행기관도 공개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2026년 2월 2일부터 2월 27일까지로, 선정 기관은 도내 선도·혁신기업의 ESG 경영체계 구축과 정착을 지원 하는 전문 파트너 역할을 맡게 된다.

이중한 전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단장은 "ESG 경영은 선택이 아닌 기업의 생존과 지속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라며 "도내 기업들이 불확실한 대외 환경 속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문 수행기관과 협력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북테크노파크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상근 기자



'전북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 참여 기업 30개사 모집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경 제통상진흥원(이하 경진원)이 도내 기업과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 사업화를 돕는 시제품 제작 지원에 나선다.

경진원은 "2026년 전북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 30개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하고도 초기 자금 부담으로 제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돕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분야는 △시제품 제작 20개 사 △시제품 제작 10개 사로 나뉜다. 선정 기업에는 재료비와 장비 사용료, 외주 제작비 등 실제 제작에 필요한 비용이 지원된다. 단순 비용 지원에

그치지 않고 분야별 전문가 1대1 멘토링과 역량 강화 교육도 함께 제공해 제품 완성도와 기업 경쟁력을 동시에 높일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인 2월 기준, 도내 거주 1년 이상 예비창업자 또는 업력 7년 이내 도내 중소기업이다. 시금형 분야는 사업자등록증 업태에 '제조업'이 명시돼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JBOK)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진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상근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